



## 『역중일기<sup>曆中日記</sup>』를 통해 본 18세기 대구 사족 최흥원의 관계망

김명자\*

1. 머리말
2. 안동지역 사족과의 혼인 관계망 강화
3. 이상정<sup>李象靖</sup>과의 교유와 퇴계학파 주류에 편입
4. 근기남인과의 교유와 『반계수록<sup>磻溪隨錄</sup>』간행에 참여
5. 맺음말

### 요약

이 글은 18세기 대구 옷골에 살았던 백불암 최흥원의 일기인 『역중일기<sup>曆中日記</sup>』를 통해 최흥원이 형성한 관계망을 살펴본 것이다. 최흥원이 평생에 걸쳐 형성한 관계망은 문중 계승 차원에서는 선조에 이어 옷골 최씨의 문인 가풍을 완성한 점에 의미가 있다. 대외적으로는 서인 혹은 노론정권이 대구지역 사족을 서인화·노론화하는 의도에 편승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영남 남인, 학문적으로는 퇴계학파의 주류에 편입되어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한 점이다. 그는 영남의 명문가, 특히 안동지역의 명문가와 혼인 관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영남 전역으로 혼반을 형성하였다. 17세기 후반 영남 남인의 수장격인 이현일의 문인으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권구와 김성탁을 방문하여 퇴계학파로의 학문적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 金命子, 경북대학교

40대 이후에는 당시 영남 최고의 학자인 이상정과 교류하는 가운데 퇴계학파의 주류에 편입되었다. 최흥원의 문인록에는 122명의 문인이 등재되어 있는데, 영남 전역에 걸쳐있다. 그는 대구지역 최고의 학자로, 근기남인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다. 경상감영에서 류형원의 『반계수록』을 간행할 당시 최흥원이 교정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최흥원, 『역중일기(曆中日記)』, 『반계수록』, 관계망, 옷골 최씨, 대구

## 1. 머리말

인간은 사회적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 관계망의 내용과 형식은 시공간 및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의 삶의 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은 그의 사회적 관계망과 표리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관계망을 통해 권력·정보·자원 등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관계망 속에 놓인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sup>1</sup>

최근 조선시대사 연구에서도 관계망을 주제로 한 연구 성과가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관계망의 형성에 혈연·지연·학연뿐만 아니라 사환도 중요한 요소라는 점, 관계망은 세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점, 교육 장소별 관계망의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sup>2</sup> 향촌사족의 관계망은

---

1 김명자, 「순조 재위기(1800~1834) 하회 풍산류씨의 현실 대응과 관계망의 변화」, 『국학연구』 29(한국국학진흥원, 2016), 78~79쪽.

2 김선경, 「16세기 성주 지역 사족의 교류 공간과 감성」, 『역사연구』 24(역사학연구소, 2013); 김정은, 「17세기 예안 사족 金垵의 교류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0(조선시대사학회, 2014);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 해배 직후 시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3(조선시대사학회, 2015).

중앙정치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sup>3</sup> 이들 연구는 생활사 연구의 영역 확장에 기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영남의 사족이 중앙정치와 향촌사회의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관계망을 구축해나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 문중은 향촌활동 혹은 대외활동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사족 개인의 위상은 문중의 위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따라서 개인이 구축한 관계망은 개인이 속한 문중의 위상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

조선시대 영남의 사족은 사회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중앙 관료로 활발하게 진출했으며 봉당정치기에는 정치적으로는 남인, 학문적으로는 퇴계학을 계승·확장하였다. 그런데 인조반정 이후 서인이 집권하게 되자 남인이 관직에 진출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외부와의 교류도 축소되었다. 특히 갑술환국 이후 노론이 집권하게 되면서 영남의 사족은 중앙 정계에서 거의 제외되었다. 내부적으로는 경제적 성장의 제한과 사족 숫자의 증가 등으로 사족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한편 서인 혹은 노론정권은 자신들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영남의 사족을 서인화·노론화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촌의 사족 가운데 일부는 집권세력 혹은 지방관과 결탁하는 가운데 향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일부는 훈인, 명망 있는 학자들과의 교류, 향촌의 이슈가 되는 문제에서의 공동 대응 등을 통해 사족과의 관계망을 더욱 강화하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유지해 나갔다.

이러한 모습을 대구 칠계[웃골]에 살았던 백불암<sup>百佛庵</sup> 최흥원<sup>崔興遠</sup>(1705~1786)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최흥원은 웃골 최씨가 현조<sup>顯祖</sup>로 받드는 인물이자 문중 기반을 확립한 인물로, 그가 구축한 관계망은 웃골

3 김명자, 앞의 논문.

최씨의 정체성 확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최흥원이 50여년에 걸쳐 책력 위에 쓴 일기가 있어 관계망의 내용을 미시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일기의 표제는 『역중일기曆中日記』(1737~1786)이고, 모두 4권이다.<sup>4</sup> 이것은 최흥원이 쓴 『역중일기원본책력曆中日記原本冊曆』(총 53권)을 베낀 것으로, 경주최씨 칠계파[웃골파] 중중에 전해지고 있다.<sup>5</sup> 일기에는 날짜별로 날씨, 제사, 부친의 병상과 가족 및 주변인의 건강, 내왕한 사람들, 특별한 사건이나 들은 이야기 등이 기록되어 있어 최흥원과 그를 둘러싼 가족의 생활상 및 향촌의 실상을 알 수 있다.

## 2. 안동지역 사족과의 혼인 관계망 강화

경상도의 중앙에 위치한 대구는 북으로는 팔공산, 남으로는 비슬산이 둘러싸고 있다. 그 사이에 낙동강이 남북으로 관통하고, 금호강이 동서로 흐른다. 조선 초기 대구현이었다가, 1466년(세조 12)에 도호부都護府로 승격되었으며, 1601년(선조 34) 경상감영이 설치되었다. 조선후기 대구는 영남의 행정과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사족으로는 경주최씨를 비롯하여 일직손씨·달성서씨·옥천전씨·성주도씨·인천채씨·단양우씨·영천이씨 등이 있다. 대구는 조선 전기부터 속현을 포함하는 과정에서 지리적 공간이 확대되어

4 『역중일기』를 활용한 선행 연구로는 오용원의 「崔興遠의 『曆中日記』를 통해 본 영남선비의 일상」, 『大東漢文學』 45(대동한문학, 2015)과 정진영의 「부자들의 빈곤2 — 18세기 중반 영남한 향촌 양반지주가의 경제생활」, 『大丘史學』 129(대구사학, 2017) 등이 있다.

5 서지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본문은 전체 332쪽이고, 매 쪽마다 14행이며, 행마다 대략 40여 자 전후로, 전체 글자 수는 17만 2천여 자이다. 대체로 해서나 행서체로 필사되어 있으나 간혹 초서체로 필사된 곳도 있다.

중앙의 읍치를 중심으로 주변 속현 사족들이 결집하기는 쉬우나 속현에 거주하는 사족 간에 결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사족의 형성과 성장이 다른 고을에 비해 늦었고, 사족세도 읍격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대구의 사족 가운데 경주최씨는 대암공파臺巖公派에 속하며, 조선개국 공신 단뫼을 1세로 한다. 옷골 경주최씨가 대구에 살게 된 것은 단의 손자 맹연孟淵 대부터이다. 그가 한양에서 대구 도동道洞으로 이거한 이후 그의 후손들은 대구의 칠계漆溪·지동枝洞·수동秀洞·도동·대명동大明洞·지묘동智妙洞 및 성주, 현풍 상동上洞 등에 세거하였다.<sup>6</sup>

8세 계諫(1567~1622)는 무과에 급제했으며, 임진왜란 당시 대구지역의 의병장으로 선무공신에 책록되었다. 계의 아들로는 동률東律·동집東集(1586~1661)·동직東植이 있는데, 동률의 후손은 지묘동과 현풍 상동에 살고 지묘파智妙派라고 한다. 동집의 후손은 칠계에 살고 칠계파漆溪派[옷골파]라고 하며, 동직은 지동에 자리 잡은 이후 그의 후손들이 세거하게 되어 지동파枝洞派라고 한다.<sup>7</sup>

『역중일기』에는 최흥원이 친척과 일상적으로 교류한 내용과 공간 및 인물들이 등장한다. 옷골 외에 지묘·종지宗旨·내동內洞 등은 경주최씨 일족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여기에 사는 친척들은 수시로 오고갔는데, 생질녀 혼례에 필요한 병풍과 교배석交拜席을 빌려주는 등 서로에게 필요한 물품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특히 묘제나 친신 등 제례와 관련하여 교류가 빈번하였다. 일족 모임을 통해 만나기도 했으며, 계를 만들어 친목을 유지하기도 하였다.<sup>8</sup>

6 『慶州崔氏臺巖公派譜』(丁卯譜); 최언돈 외, 『옷골의 인물과 유적』(백불암연구소, 2016), 64쪽.

7 崔彥淳, 『百弗庵 崔興遠의 夫仁洞 및 漆溪[옷골] 經營 規範 研究』(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28쪽.

8 『역중일기』 1737년 12월 초6일·12월 14일; 1743년 11월 15일; 1744년 11월 16일; 1737년 12월 초6일 외. 향후 『역중일기』를 인용한 경우에는 일기 명을 생략하고 연도 월 일만 표기하겠다.

웃골의 경주최씨는 입향조 9세 최동집 이후 위남衛南(1611~1662) ⇒ 경한慶涵(1633~1699) ⇒ 수학壽學(1652~1714) ⇒ 정석鼎錫(1678~1735) ⇒ 흥원으로 가계가 이어진다. 최동집부터 16세 최흥원의 손자 대까지, 웃골 최씨와 혼인한 성씨는 다음의 <표 1>과 같다.<sup>9</sup>

<표 1> 웃골의 경주최씨 9세~16세와 혼인한 성씨

世	성별	인원 (명)	혼인 성씨 * [ ] 속 숫자는 한 사람이 혼인한 성씨의 순서
9세	남	1	여강이[1, 경주], 인천채[2], 청송삼[3], 청도김[4]
	여		
10세	남	1	전의이[李之華 딸, 대구], 나머지 6명은 혼인성씨 미상
	여	1	달성서[대구]
11세	남	1	영천이[의성]
	여	4	야성송, 영천이[대구], 옥천전[대구], 광주노
12세	남	1	예안이[1, 안동], 금성정[2]
	여	9	의성김[안동], 남평문, 야성송, 오천정, 밀양박, 옥천김, 풍산김[안동 풍산, 金奉祖 현손], 완산이, 박[본관미상]
13세	남	4	의성김[안동, 김성일 후], 함안조, 경주이[경주], 옥산전
	여	1	벽진이[李彦英 후]
14세	남	7	일직손[최흥원 부인], 고성이[안동 법흥], 안동권, 오천정[鄭克後 후], 옥산장[안동, 장현광 후], 노[본관미상]1 일직손[2], 성산이[李軾 후]
	여	2	풍산류[안동 하회, 류성룡 후], 풍산류[안동 하회, 柳雲龍 후]
15세	남	9	풍산류[안동 하회, 柳雲龍 후], 일직손[孫鑣民 딸], <b>이주신[의성, 申之梯 후]</b> , 일직손[孫鑣民 손녀], 의성김[안동 임하, 金涌 후], 영천이[대구], 함안조, 달성서, 동래정
	여	11	벽진이[성주, 李彦英 후], 의성김[안동 지례, 金是樞 후], 선성이, 순천박[林而章 후, 고령], 광산김, 안동권, 함안조, 완산이, 전의이, 창녕조[曹好益 후, 영천], 인천이
16세	남	5	진양정[상주, 정경세 후], 여주이[李洵 후], 밀양손[孫起陽 후, 孫磬漢 딸], 밀양박[林壽春 후], 의성김[안동 금계, 金誠一 후]
	여	9	고성이[안동 법흥], 함양박, 의성김[안동 지례, 金是樞 후], 밀양손[孫起陽 후, 孫磬漢 아들], 의성김, 의성김[안동 임하, 金涌 후], 밀양박[林翹 후], 선성이, 밀양손[孫起陽 후, 孫磬漢 후]

9 『慶州崔氏臺巖公派譜』(丁卯譜).

9세부터 16세까지 혼인 성씨를 확인할 수 있는 인물은 66명이다. 9세부터 11세까지는 옥천전씨·인천채씨·달성서씨·영천이씨 등 주로 대구의 사족과 혼인하였다. 대구지역 사족과의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역에서의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12세부터는 예안이씨를 비롯하여 의성김씨·풍산김씨·고성이씨 등 안동 지역의 사족과 혼인하였으며, 영천의 오천정씨·성주의 벽진이씨·경주의 경주이씨 등과도 혼인하였다. 혼인 대상이 경상도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옷골 최씨가 12세부터 안동지역으로 혼인이 이루어지는 데는 11세 최경함의 노력이 컸다. 그는 안동 풍산 우릉의 예안이씨를 며느리로 맞이하였다. 아버지는 호군 이지표李地標였고, 외조부는 부사를 역임했던 풍산김씨의 김시리金時離이다. 최경함은 사위가 9명인데, 7번째 사위 김서린金瑞麟은 안동 풍산 오미동의 풍산김씨로, 서애 류성룡의 문인인 학호鶴湖 김봉조金奉祖(1572~1630)의 현손이다. 예안이씨와 혼인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인근 마을의 풍산김씨와도 혼인이 이루어진 것 같고, 향후 하회의 풍산류씨와도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최경함의 첫째 사위는 김세흠金世欽으로, 안동에 거주하는 의성김씨 김태기金泰基의 아들이다. 그의 재종조再從祖는 승정처사로 불리는 김시은金是榘(1598~1669)이다. 의성김씨는 퇴계학과 내의 학봉계(김성일계)를 주도 하던 성씨 가운데 하나이다. 김태기는 갈암 이현일(1627~1704)과 고산 이유장(1625~1701) 등 영남학파의 주요 인물들과 교류했다. 김세흠은 이현일의 문인으로, 1687년(숙종 13) 문과 급제하여 사헌부 지평-홍문관 수찬 등의 청요직을 역임하였다. 13세 최인석도 학봉 김성일의 현손녀를 아내로 맞이하여, 경추최씨는 의성김씨와 증첩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는 의성김씨의 여러 인사들과 교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최흥원은 김강한金江漢(1719~1779)과 교류하는데,<sup>10</sup> 그는 약봉 김극일의 6세손으로, 어머니는 퇴계 이황의 중형인 이해李淮의 후손이다. 김강한은

이현일의 문인인 제산 김성탁에게 배웠으며, 이후 김성탁의 아들인 김낙행을 스승으로 모셨다. 김강한은 당시 영남의 최고 학자로 언급되던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1711~1781)과 교유하였다. 이처럼 경주최씨는 의성김씨와의 혼인으로 의성김씨의 관계망 속에 편입될 수 있었다.

14세 최흥원은 증조부에 이어 안동의 명망 있는 가문과 혼인하려고 노력하였다. 12~13세가 의성김씨와 중첩 혼인을 하였다면, 14~15세는 안동지역에서 의성김씨와 쌍벽을 이루는 하회의 풍산류씨와 거듭 혼인하였다. 최흥원의 매부는 하회의 류성복柳聖復이다. 그는 류항柳航의 아들로, 류성룡의 후손이다. 종매부는 류응춘柳應春으로, 류운룡의 후손이다.<sup>11</sup>

최흥원은 류운룡의 후손이자 류영柳泳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였다. 1743년 1월 18일, 류영이 최흥원 집안과 혼인할 뜻이 있다고 편지로 알려왔고, 2월 10일과 3월 7일에 최흥원과 가까운 사이인 하회의 ‘류호이柳浩而’라는 자가 류영이 경주최씨와 혼인할 뜻이 확고하다고 알려주었다.<sup>12</sup> 4월 30일, 양쪽 집안에서 최종적으로 혼인하기로 결정하였다.<sup>13</sup> 최흥원이 사주단자와 의양단자를 주자,<sup>14</sup> 풍산류씨는 혼인 날짜를 10월 13일로 정했다.<sup>15</sup> 최흥원 아들 주진周鎭(1724~1763)의 혼사가 거론된 이후 9개월 만에 혼례를 치른

10 1753년 5월 23일; 1752년 2월 14일; 1757년 5월 9일; 1758년 8월 29일.

11 『豊山柳氏世譜』(풍산류씨족보편찬위원회, 1985).

12 1743년 2월 10일·3월 7일.

13 1743년 4월 30일.

14 1743년 8월 18일. “낮에 河上 柳詠씨 집 심부름꾼이 왔다. 곧 사주단자를 들고 온 심부름꾼인데 편리함을 좇아서 온 김에 아울러 의양단자를 청하였으니, 이것은 실례 중에서도 또 실례이다. 그러나 저쪽에서 이미 시속의 간편함을 따르고자 하는데 하필 나 혼자만 무리들과 달리 고고하게 굴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 이는 시속에 따른 혼례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15 1743년 10월 16일.

것이다.

1750년에도 경주최씨와 풍산류씨의 혼사가 있었고,<sup>16</sup> 그 다음해에 류연柳演이 또 옷골 최씨와 혼인할 의사를 내비쳤다.<sup>17</sup> 18세기 옷골의 경주최씨는 의성김씨·풍산류씨와 혼반이 형성되었는데, 이는 옷골 최씨가 영남 최고의 가계家格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밀양에 사는 최흥원의 처남 손진민孫鎭民(1696~?)은 자신의 딸을 최흥원의 조카(아우의 둘째 아들)과 맺어주려고 하였다.<sup>18</sup>

- 장모께 작별을 고하고 개천(孫鎭民)과 손을 맞잡고 대문 밖으로 나와 작별하였는데, 개천이 또 그의 조카를 시켜 다시 나를 문 안으로 맞이하게 하여 말하기를, “여식의 혼사는 반드시 둘째아우 집으로 결정하여 결단코 다른 뜻이 없다는 뜻으로써 돌아가 말하여 주게.”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우리 두 집안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만이었으나 이미 말을 꺼냈다면 일이 아주 증대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니, 개천이 말하기를 “나의 뜻은 아주 확고하네.” 하였다.

(1741년 9월 28일)

- 밤이 깊은 뒤에 손 개천이 또 혼담을 꺼냈는데, 말의 뜻이 아주 굳건하였다. 나도 생각해보니 부탁을 물리치기가 어려웠으므로 돌아가서 둘째아우와 의논해보겠다는 뜻으로 대답하였다.

(1743년 2월 5일)

- 밤에 손 개천이 그의 여식의 혼사에 대해 말하였는데, 둘째조카와 혼인을 시키기로 굳게 정하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1744년 4월 16일)

---

16 1750년 3월 21일·4월 8일~9일.

17 1751년 9월 4일; 1752년 1월 16일.

18 1741년 9월 27일~28일; 1743년 2월 5일; 1744년 4월 16일.

일직손씨는 자신의 딸을 최흥원 집에 시집보내려고 몇 년을 걸쳐 정성을 들였다. 결국 손진민의 누이(14세 최흥원의 부인)를 비롯하여 그의 딸(15세 崔尙鎭의 부인)과 손녀(15세 崔華鎭의 부인)가 옷골로 시집왔다. 경주최씨는 안동권으로 혼인을 집중하면서도 영남 우도까지 혼반을 형성하였다.

경주최씨는 혼인한 성씨들과 어떻게 교류했을까? 일기에는 13~14세와 혼인한 성씨와의 일상적인 교류 내용이 잘 드러난다. 최흥원의 아버지 최정석은 대구 원북院北의 함안조씨와 혼인하였다. 최흥원과 형제들은 원북의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의 제사에 참석하기도 하고, 안부 차 혹은 오고 가는 길에 원북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외가 쪽의 사촌들도 최흥원의 집에 자주 놀러왔다. 제수용품물 주고받거나 쌀·송어·환약·전복 등의 음식과 약 등 생활용품도 나누었으며, 이항복의 『백사집白沙集』을 비롯하여 책을 빌리기도 하였다.<sup>19</sup> 최흥원은 외가가 가난하여 제전祭田을 나누어주었으며, 외할아버지의 기일에는 매번 제수를 챙겨 보냈다고 하였다.<sup>20</sup>

최흥원의 처가는 밀양 죽서竹西[竹院]이다. 그는 일직손씨와 혼인했는데, 장인은 경상좌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한 손명대孫命大이다. 일기에는 처남 손진민·손진방 형제가 자주 나온다. 손진민은 1730년(영조 6) 무과에 급제하여 개천 현감, 진도 군수, 병마절도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등을 역임하였다. 일기에는 ‘손 개천’, ‘손 진도’로 언급되기도 하였다. 두 집안 사이에 편지가 자주 오고갔을 뿐만 아니라 물품도 자주 주고받았다. 처가에서는 인삼 1돈, 환약 5알을 주거나, 기장 쌀 두 말, 수박 다섯 개, 참외 열 몇 개 등을 한꺼번에 주기도 했다.<sup>21</sup> 최흥원 역시 처가에 생활용품물 비롯하여 돈도 여러 번 보냈다.

19 1739년 4월 초5일; 1751년 3월 5일 외.

20 『국역백불암선생언행록』 제1권, 「연보」.

21 1741년 7월 8일; 1742년 2월 5일.

막내 제수씨의 친정인 경주 하곡(霞谷), 현풍(달성군)에 사는곽정(郭琮)에게 시집간 사촌 누이와 곽씨 조카들, 종수씨(從嫂氏)의 친정인 안동 오산(鰲山)의 안동장씨와도 교류가 있었다. 하곡의 사장 어른에게 『성리대전(性理大全)』 25책을 빌려 주거나<sup>22</sup> 친정어머니가 아프다고 인삼과 약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외가와 처가에 비해 물품의 교류는 적었고, 안부를 비롯한 연락을 주고받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1740년 8월 22일~23일에는 경주최씨와 혼인 관계를 맺은 여러 성씨들이 옷골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석전(石田)·하회(河上)·순흥·지례(知禮)·의령에서 손님이 왔는데, 석전의 광주이씨, 하회의 풍산류씨, 지례의 의성김씨 등은 옷골 최씨와 혼인이 이루어진 성씨이다. 이들은 하룻밤 함께 머물다가 그 다음날 석전의 세 친구, 하회의 여섯 손님, 순흥 파전(波田)의 사촌 아재 김씨, 안동 지례의 김생(金生)은 돌아가고, 류희연(柳希淵)(류성복)과 손계삼(孫季心)은 계속 머물렀다.<sup>23</sup>

이들은 혼인 관계망을 이용하여 서로 책을 빌려주고 공부하다가 의문나는 점에 대해 질의하거나 함께 토론하기도 하였다.

- 상만(尙萬)이 하상(河上)(하회)에서 돌아왔는데, 『서애집(西厓集)』 9권과 『징비록(懲錄)』 1권을 빌려 왔다.<sup>24</sup>
- 상만을 하상에 보내면서 『예의보유(禮儀補遺)』 3책을 매형(류성복)에게 빌려 주었다.<sup>25</sup>

22 1733년 7월 13일.

23 1740년 8월 23일.

24 1741년 6월 초9일.

25 1743년 1월 12일.

- 하상 심부름꾼이 돌아가는 길에 류희연[류성복]에게 『근사록近思錄』 4책을 보냈는데, 묻고 배우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마지막 권의 표지 안쪽에 써서 주었다.<sup>26</sup>
- 둘째 아우가 […중략] 김탁이金灌而(김강한의 字)의 사칠이기론四七理氣論에 대한 의혹이 갑자기 풀렸다고 한다.<sup>27</sup>

최흥원은 사돈 집안과 물품을 주고받으면서 경제적인 교류도 하였지만, 수시로 책을 빌려 주고 받거나 공부하는 가운데 모르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지적 정보도 공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돈 집안끼리는 비슷한 학문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혼인을 매개로 집단 지성이 형성되기도 했던 것이다.

### 3. 이상정李象靖과의 교유와 퇴계학파의 주류에 편입

인조반정이후 서인 혹은 노론 세력은 그 외연을 확대하고자 했다. 대구에는 경상감영이 설치된 이후 중앙세력의 영향력이 경상도의 다른 고을보다 더욱 강하였다. 대구는 고을의 규모에 비해 사족세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중앙 권력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17세기 후반부터 옥천전씨·능성구씨·인천채씨·영천이씨 등 서인 가문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집권세력 혹은 지방관과 교유 결탁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였다.<sup>28</sup>

26 1748년 1월 2일.

27 1746년 5월 23일.

28 신주엽, 『17~18세기 대구지역 서인계 사족의 활동 — 옥천 전씨를 중심으로』(경북대 석사논문, 2018), 15~16쪽.

이러한 지역적 분위기 속에서 옷골 최씨는 어떻게 정치적·학문적 입장을 확립해갔을까? 옷골 입향조 최동집의 아버지 최계는 무과로 출사하던 가풍을 문인 가풍으로 바꾸려고 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최동집으로 이어졌다. 최동집은 미수 허목과 함께 한강 정구<sup>29</sup>의 문하에 출입하는 가운데 학문을 익히며, 이들을 배향하던 연경서원<sup>研經書院</sup>이 화재로 소실되자 중건에 앞장섰다. 부인동 향약의 실천에 힘을 기울였으며, 이를 위해 농연정사<sup>蠶淵精舍</sup>를 지었다. 증손자 최수학은 1691년 무과에 급제하여 사헌부 감찰·광양 현감 등을 역임하였다.

최흥원 대에 이르면 가풍의 확립과 문풍 진작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게 된다. 최흥원은 『부인동동약』을 만들고, 선조의 문집을 정리하고, 사당과 재실인 보본당<sup>報本堂</sup>을 건립하여 최동집을 불천위로 모시기 위해 노력하였다.<sup>30</sup> 그는 성실하게 학문을 연마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는 당대 영남학파의 핵심 인물들과 교류하였다. 이를 통해 퇴계학파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최흥원이 30대에 이현일의 문인인 병곡<sup>屏谷</sup> 권구<sup>權渠</sup>(1672~1749)와 제산<sup>齊山</sup> 김성탁<sup>金聖鐸</sup>(1684~1747)을 방문하였는데, 이는 최흥원이 퇴계학파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앞의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옷골 최씨와 혼인한 적이 있던 대구의 옥천전씨·인천채씨 등도 이미 서인으로 전향하였고, 최흥원의 조부 최수학은 모함을 받아 전라도 운봉으로 귀양을 가는 등<sup>31</sup> 지역사회에서 남인 성향의 사족에 대한

29 정구는 최동집의 처이모부이다(최언돈 외, 『옷골의 인물과 유적』(백불암연구소, 2016), 300쪽).

30 『국역백불암선생연행록』 권1, 『世系 年譜』.

31 최언돈 외, 『통훈대부호군 경주최공(수학) 묘갈명』, 『옷골의 행장과 비문』(백불암연구소, 2017), 94~97쪽.

탄압과 회유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40년 최흥원은 안동의 지곡에 살고 있던 권구를 찾아뵈었다. 권구는 처조부이자 스승인 이현일과 그의 아들 이재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다. 어사 박문수는 권구의 학문이 깊고 행동이 독실하여 이재와 함께 관직에 천거하였다. 그런데 1728년(영조 4) 권구는 이인좌의 난에 휘말려 한양으로 압송되어 영조의 친국을 받았다. 솔직하고 조리 있게 진술하여 곧 석방되었으나, 이후 권구는 바깥출입을 삼가며 더욱 학문에만 침잠하였다.

최흥원은 같은 해 12월에 전라도 광양에 유배중인 김성탁을 만나러 일부러 먼 길을 갔다. 김성탁은 1735년(영조 11) 문과 급제 이후 시간원 정언-홍문관 수찬 등을 역임하였다. 1737년 이현일의 신원소<sup>伸寃疏</sup>를 올렸다는 이유로 제주(당시 전라도)의 정의<sup>旌義</sup>와 전라도 광양 등지에 유배되었다. 권구와 김성탁은 지역에서 학문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이었지만 노론 정권 하에서 이현일의 문인 혹은 이현일의 신원 활동을 한 이유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최흥원이 이들을 방문한 것은 퇴계학파로서 정치적·학문적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흥원이 30대부터 80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교유했던 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는 치재<sup>恥齋</sup> 조선적<sup>曹善迪</sup>(1697~1756)<sup>32</sup>, 강와<sup>剛窩</sup> 임필대<sup>任必大</sup>(1709~1771), 대산<sup>大山</sup> 이상정, 소산<sup>小山</sup> 이광정<sup>李光靖</sup>(1714~1789), 눌은<sup>訥隱</sup> 이광정<sup>李光庭</sup>(1674~1756), 난곡<sup>蘭谷</sup> 김강한<sup>金江漢</sup>(1719~1779), 후산<sup>后山</sup> 이종수<sup>李宗洙</sup>(1722~1797)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최흥원이 30대에 가깝게 지냈던 인물은 조선적이다. 그는

32 조선적의 字는 仲吉, 號는 恥齋, 본관은 창녕이다. 李衡祥의 문인으로, 일생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경전탐구와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영천 지역에서 활동한 문인으로, 학문의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사람들이 그를 종사(宗師)로 여겼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로 방문하여 공부하였고,<sup>33</sup> 최흥원은 그의 아들을 조선적에게 보내어 학문을 익히도록 하였다.<sup>34</sup>

최흥원은 40대 초반에 이상정을 만나게 되는데, 그와의 교유는 윗골 최씨가 영남학파의 주류로 편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조선중후기 영남학파는 분파와 통합의 과정을 거쳤다. 16세기에는 크게 퇴계학과와 남명학파로 나누어졌으며, 퇴계학파는 퇴계 이황의 고제인 월천 조목·서애 류성룡·학봉 김성일·한강 정구 등을 중심으로 분파되었다. 그 가운데 학봉계는 김성일에서 장흥효(張興孝) ⇒ 이현일로 이어진다. 이현일은 17세기 후반 영남의 여러 분파를 통합하였으며,<sup>35</sup> 이는 다시 밀암(密庵) 이재(李裁) ⇒ 이상정으로 계승되었다고 한다. 이상정은 학문과 강학 활동을 통해 이현일에 이어 18세기의 영남학파를 다시 한 번 결집시켰다.<sup>36</sup> 이상정은 18세기 영남학파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다.

『백불암문집』에는 397의 편지가 실려 있으며, 이 가운데 이상정과 주고받은 편지가 53건으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sup>37</sup> 최흥원의 연보에 의하면, 1746년 9월 최흥원이 안동 풍산 오미동에서 처음으로 이상정을 만났다고 한다.<sup>38</sup> 일기에는 1746년 9월 22일 이상정의 집을 방문하여 이상정의 아버지와 아우를 보았지만 이상정을 보지 못하여 서운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33 1748년 1월 16일.

34 1737년 1월 20일.

35 金鶴洙, 『17세기 嶺南學派 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380쪽.

36 김명자, 「大山 李象靖(1711~1781)의 학문공동체 형성과 그 확대 — 『大山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9(조선시대사학회, 2014), 205쪽.

37 慶州崔氏漆溪派宗中, 『百弗庵先生文集』, 1999.

38 『국역백불암선생연행록』 권1, 「世系 年譜」

이로 미루어 보면 최흥원은 40대 초반에 이상정과 그의 아우 이광정을 만났음을 알 수 있다.

1748년 1월 13일에 이상정이 최흥원을 방문하여 열흘정도 머물다가 1월 22일에 돌아갔다. 최흥원은 이상정과 함께 강학하고 싶었는데, 그가 방문하여 머물겠다고 하여 매우 기뻐하였으며,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많은 내용을 함께 토론하였다. 두 사람은 부인사와 동화사를 비롯하여 최동집의 흔적이 남아 있는 농연農淵 등을 둘러보았다. 이후에도 서로 방문하거나 편지로 심心·의義·가례家禮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sup>39</sup>

최흥원은 영남의 명망 있는 인사들과 교유했을 뿐만 아니라 영남의 인재들이 최흥원에게 와서 배움을 청하기도 하였다. 최흥원은 이상정·박손경朴孫慶(1713~1782)과 더불어 ‘영남삼로嶺南三老’로 칭송될 만큼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았다.<sup>40</sup> 이상정은 아들 이완李完을 최흥원에게 보내어 수학하도록 하였다.<sup>41</sup> 최흥원의 문인록인 『급문록及門錄』에는 문인 122명의 성명, 출생간지, 본관, 거주지, 간단한 이력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지역과 성관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sup>42</sup>

최흥원의 문인은 영남 16개 지역의 121명이고, 한양 1명이다. 지역적으로는 대구·안동·칠곡·밀양·경주 순이다. 성씨별로는 가족과 친척을 포함한 경주최씨가 35명으로 월등히 많고, 그 다음 한산이씨와 벽진이씨가 7명, 오천정씨가 6명, 의성김씨가 5명 순이다. 최흥원은 영남에서 명망있는 학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9 최흥원과 이상정과의 교유에 대해서는 李在喆의 『百弗庵 崔興遠의 時代와 그의 現實對應』, 『퇴계학과 유교문화』 29(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1)을 참고할 수 있다.

40 『국역백불암선생언행록』 권2, 「묘지명」.

41 『大山先生實紀』卷1, 「年譜」; 『大山日記』.

42 『국역백불암선생언행록』 권7, 「及門錄」 표 작성시 최언돈의 앞의 하위논문을 참고하였다.

〈표 2〉 최흥원 문인의 지역과 성관

(단위: 명)

지역	합계	성관	인원	지역	합계	성관	인원	지역	합계	성관	인원
대구	44	경주최	33	칠곡	13	벽진이	7	의성	5	안동김	4
		순천박	3			광주이	3			광산김	1
		함안조	3			밀양	8	동래정	3	선산	3
		문화유	1	밀양박	2			연안이	1		
		인천채	1	밀양손	2			상주	2		
		일직손	1	일직손	2					진주정	1
		팔거도	1	동양신	1			고령	2	현풍곽	2
		현풍곽	1	벽진이	1	영천	2	창녕조	2		
안동	21	한산이	7	경주	7	오천정	6	하양	2	청도김	2
		의성김	5			경주최	1			현풍	2
		선성이	3			단성	6	안동권	3	성주	1
		풍산류	3	순천박	2			예천	1	함양박	1
		고성이	2	팔거도	1			한양	1	풍양조	1
		광산김	1	거창	1			파평윤	1	미상	1

최흥원은 자신이 평생 구축한 관계망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그는 아들 주진에게 조선적·이상정·소산 이광정·성호 이익·눌은 이광정 등에게 나아가 배우도록 하였다. 조카 항진(恒鎭)·사진(思鎭)·상진(尙鎭), 족제 흥벽(興璧), 손자 식(湜)도 이상정의 문하에서 종학하게 하였다.<sup>43</sup> 이와 더불어 증손자 최효술(崔孝述)이 이상정의 고제인 입재(立齋) 정종로(鄭宗魯)의 문인이자 외손자가 됨으로써, 경주최씨는 퇴계학파의 주류가 됨과 동시에 퇴계학파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확고해졌다.

43 『국역백불암선생연행록』 권1, 「世系年譜」.

#### 4. 근기남인과의 교류와 『반계수록』 간행에 참여

1770년 영조의 명으로 경상감영에서 『반계수록』을 간행하였다. 그때 교정은 최흥원이 맡았다. 그는 선대를 이어 영남 남인의 주류에 속하는 가문과의 혼인에 정성을 기울였으며, 지역의 명망 있는 학자들과의 교류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그에게 배우러 오는 문인이 영남 전역에 걸쳐 있었다. 근기남인과의 교류를 위해서 아들과 조카들을 한양과 경기도에 보내기도 하였다. 최흥원이 『반계수록』의 간행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반계수록』은 반계(磻溪) 류형원(柳馨遠(1622~1673))이 통치제도에 관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저술한 26권 13책 분량의 책이다. 이 책은 류형원이 관직생활을 단념하고 전북 부안군 우반동에 은거하면서 1652년(효종 2)부터 집필하기 시작하여 1670년까지 20여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물이다. 류형원은 이 책을 마무리 한 후 3년 만에 사망하여 이 책에 담았던 그의 뜻을 제대로 세상에 펼쳐 보이지도 못하였다.

류형원의 저작을 세상에 알리고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한 인물은 류형원의 사돈이자 학문을 매개로 교류했던 만학당(晩學堂) 배상유(裴尙諭(1622~1686))이다. 그는 류형원과의 토론을 통해 『반계수록』의 완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1678년(숙종 4)에 배상유는 『반계수록』에 반영된 개혁안의 실시를 촉구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현실에 반영되지 않았다.<sup>44</sup>

배상유는 『반계수록』을 여러 부 필사하여 당시 남인의 거두였던 윤희(尹鑾)와 재야 남인의 수장격인 이현일 등에게 보내어 책의 간행과 류형원의

44 숙종 4년 무오(1678) 6월 20일(기축). 1694년 盧思孝 등도 『반계수록』에 반영된 개혁안의 실시를 촉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개혁안을 정책에 반영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윤희와 이현일은 『반계수록』의 내용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지만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는 소극적이었다.

류장柳丈의 『반계수록』과 배공근裴公瑾의 편지를 보내 주시어 매우 감사합니다. 13책冊을 절반도 읽지 못하여 저도 모르게 책을 덮고 눈물을 흘리며 비로소 세상에 이런 위대한 사나이가 있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초야에 묻혀 끝내 죽을 때까지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슬프고 한탄스럽습니다. [...중략] 『편篇』의 끝에 이름을 걸게 하는 것이라면 현일은 책임자가 아니고, 책이 널리 전파되게 하는 것이라면 현일은 그렇게 할 만한 재력이 없습니다.”<sup>45</sup>

위의 편지는 이현일이 배상유에게 보낸 것으로, 『반계수록』의 간행에 관여할 형편이 안된다는 내용이다. 남인이 중앙 정계에서 몰락하고 배상유 또한 세상을 떠나게 되자 『반계수록』은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였다. 겨우 몇 부 만이 필사되어 후손과 몇몇 사람들에게만 전해졌을 뿐이었다.

1741년(영조 17) 양득중梁得中이 영조에게 토지 검병의 폐해를 논하면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 『반계수록』의 내용을 실행에 옮길 것을 상소하였다. 그는 일찍이 스승 윤증尹拯의 집에서 『반계수록』을 보았는데 내용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과 류형원의 후손들이 전라도 부안과 경기 과천에 거주하고 있으니 거기서 책을 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아뢰었다.<sup>46</sup>

이익의 『성호전집』에는 『반계수록』 서문이 실려 있다. 간행된 『반계수록』에는 그의 서문이 실려 있지 않지만 이익 역시 『반계수록』에 매우 관심을

45 『국역갈암집』 권10, 書「裴公瑾 尙瑜에게 답함」.

46 영조 17년 신유(1741) 2월 23일(무오).

가졌음을 알 수 있다.<sup>47</sup> 류형원의 어머니는 이익의 종고모이고, 류형원의 스승 이원진李元鎭은 이익의 당숙이다. 이익이 『반계수록』에 관심을 갖게 된 데는 혈연과 학연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1750년(영조 26)에는 좌참찬 권적權稹이 『반계수록』의 개혁안이야말로 ‘3대 이후 제일가는 국가 경영의 위대한 계획’이라고 하면서 수록의 간행을 청하였다.

결국 영조는 흥계희에게 명하여 류형원의 전기를 써 올리도록 했고, 1769년 11월 『반계수록』 3부를 간행하여 바치도록 했으며, 1부는 남한산성으로 보내어 판각하라고 하였다.<sup>48</sup> 그러나 남한산성에서 판각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반계수록』은 그 다음해 왕명으로 경상감영에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반계수록』이 저술된 지 100여 년이 걸려 공식적으로 간행된 것이다.

영조는 『반계수록』 간행 시 도내의 명유名儒들에게 교정하게 했는데, 감사 이미李彌는 지역 사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흥원에게 교정을 맡겼다.<sup>49</sup> 교정 기간은 1월부터 3월 중순까지였으며, 교정 장소는 두 군데였다. 처음에는 최흥원의 집에서 교정을 봤다. 감영에서는 2월 30일부터 여러 날에 걸쳐 아전 신창권申昌權을 보내어 최흥원이 『반계수록』 교정 본 것을 받아오라고 하자, 최흥원은 교정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3월 2일에 교정 본 것을 주었다.<sup>50</sup> 3월 6일 감사가 최흥원에게 『반계수록』 13책을 동화사에서 다시 교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래서 3월 중순까지 동화사에서 교정을 하게 되었다.<sup>51</sup>

감사가 최흥원에게 교정을 맡긴 이유는 다음과 같다.<sup>52</sup> 첫째, 최흥원은

47 『星湖全集』卷50, 「磻溪隨錄序」.

48 영조 45년 기축(1769) 11월 11일(기축).

49 『국역백불암선생언행록』 제1권, 「世系, 年譜」.

50 1770년 2월 30일.

51 1770년 3월 10일.

52 1783년 경상 감사 李秉模가 정조에게 최흥원이 교정하는데 수고가 많았다고 아뢰어,

당시 대구 지역 최고의 학자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최흥원의 문인록에는 122명의 문인이 등재되어 있다. 그 가운데 대구 출신은 44명으로, 가장 많다. 감사는 최흥원 개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 학문적 소양이 높은 인물들이 최흥원과 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교정 작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최흥원이 국가에서 간행하는 서적의 교정 작업을 주도한 것은 그가 대구지역 최고의 학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역증일기』에는 교정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이 나온다. 최흥건(崔興健·최흥벽(崔興璧(1739~?))·최흥부(崔興溥(1720~1796))·최우진(崔宇鎭(1740~1794))·최사진(崔思鎭 등 집안 식구들과 남석로(南碩老(1729~1774))<sup>53</sup>, 이종악(李宗岳(1726~1773))<sup>54</sup> 등이다. 남석로는 영양남씨로, 대구 입석(立石) 출신이다. 1754년(영조 30) 문과 급제하여 만경 현령-봉상시 주부 등을 지냈다. 그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히는 것에 반대하다가 영조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였다. 이종악은 고성이씨로 안동 출신이며, 최흥원의 손녀사위 이종우(李宗愚)와 사촌 간이다.

둘째, 최흥원은 일찍부터 『반계수록』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었다. 그는 1748년에 대구 관아에서 『반계수록』을 처음으로 구해 봤다. 같은 해 11월 28일 아들 주진을 보내어 대구 부사를 뵈게 하고 빌려왔던 『반계수록』을 돌려주었다.<sup>55</sup> 한번 훑어보려고 한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때 다행히 뜻한

정조는 최흥원에게 사서언해 각각 한질을 하사하였다(『국역백불암문집』 권2, 書『與李方伯秉模』).

53 1770년 2월 30일·3월 1일.

54 1770년 2월 4일·3월 1일. 이종악의 호는 虛舟이고, 안동 범흥동에 위치한 臨淸閣의 종손이다.

55 1748년 11월 28일.

대로 구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sup>56</sup>

1752년에 최홍원은 『반계수록』을 베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공책 10여 권을 준비하여 원근의 친지들에게 『반계수록』을 조금씩 베껴주길 부탁하였다.<sup>57</sup> 3월 2일 조춘경趙春慶 형제에게 편지를 써서 『반계수록』 2책을 보내어 베끼도록 하였다. 8월 6일에는 ‘이수재李秀才’라는 자가 아랫마을 일족 어른 댁에 와서 머물면서 최홍원을 찾아오자, 최홍원은 그에게 『반계수록』을 베끼라고 하였다. 그가 열흘 만에 1책을 베껴 오자, 최홍원은 그를 매우 단아하고 명석하며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1753년 1월 27일 최홍원은 수령에게 빌린 『반계수록』을 돌려주었고, 같은 해 윤4월 21일 승려 여관呂寬에게 『수록隨錄』 13책을 꾸며 꿰매도록 하였다.

최홍원이 필사본 『반계수록』을 가지고 있게 되자, 주변에서는 그의 책에 관심을 보였다. 하동 부사가 최홍원에게 『반계수록』 13책을 빌려서 베끼겠다고 청하자, 최홍원은 그것을 허락하였다.<sup>58</sup> 1765년 5월 4일 하양 수령에게도 『반계수록』을 빌려주었다.<sup>59</sup> 『반계수록』은 18세기 조야의 지식인이 관심을 갖는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홍원이 『반계수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분명하지는 않다. 최홍원의 어머니 함안조씨는 한양의 소론 명문이었던 평창이씨와 혼인이 잦았고, 어머니의 외가인 평창이씨는 류형원의 문화류씨와 빈번하게 혼인하였다. 문화류씨는 최홍원 어머니의 진외가가 되고 류형원의 아들은 최홍원에게 조카뻘이 되었다. 최홍원의 아들은 한양에 가서 류형원의 후손을 만나기도 하였다. 이런 계기로 최홍원은 『반계수록』에 대한 정보를

56 1748년 8월 26일.

57 임신년(1752년, 영조 28) 2월 19일.

58 1764년 8월 22일.

59 1761년 6월 20일.

일찍 접했을 것이다.

셋째, 최흥원은 일찍부터 류형원의 후손을 비롯하여 근기남인과의 교류가 있었다. 최흥원이 교정 작업을 맡기 이전에 이미 류형원 집안과 교류하고 있었다. 1739년 8월 21일의 일기에는 최흥원이 한양 도저동에 살고 있는 류형원의 증손 류명위(柳明渭)에게 편지를 부친 사실이 나온다.<sup>60</sup> 1758년에 최흥원은 류명위가 보낸 편지와 책력을 받았다.<sup>61</sup> 최흥원이 공식적으로는 감사의 권유로 수록 교정 작업을 했지만, 사적으로는 류명위의 거듭된 부탁이 있었다.<sup>62</sup> 최흥원은 교정 작업을 하면서 경전 등 여러 서적의 중요한 곳만 교정하여 식견 없음을 매우 괴로워하였으며, 류명위의 간곡한 요청을 저버린 듯하여 매우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었다.<sup>63</sup>

최흥원은 류형원 집안뿐만 아니라 성호 이익, 순암 안정복 등 근기 남인과의 교류도 있었다. 1751년 3월 최흥원의 아들 주진이 이익을 방문하였다. 1763년(영조 39) 최흥원은 조카 향진을 시켜 이익에게 5대조의 묘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향진의 부모가 잇달아 병이 들어 멀리 보낼 수 없다고 하였다.<sup>64</sup>

1762년에 단성(丹城)에 사는 안정덕(安鼎德)이라는 자가 최흥원을 방문했는데, 그는 안정복의 사촌 아우였다. 그는 옷골 최씨와 인척인 진양(晉陽) 정옥(鄭喆)이 최흥원의 셋째 아우에게 보낸 편지를 가져왔다.<sup>65</sup> 안정복이 지은 최흥원의 묘지명에 보면 1784년 봄에 최흥원은 세자익위사의 좌익찬으로 천거

60 1739년 8월 21일 류명위가 1783년(정조 7)에 경상 감사 趙時俊의 협조를 받아 류형원과 관련된 전기 자료와 『郡縣制』를 補遺로 편집하여 추각하였다(『礪溪隨錄 礪溪隨錄補遺跋』).

61 1758년 12월 17일.

62 1770년 1월 16일.

63 1770년 3월 1일.

64 1763년 2월 28일.

65 1762년 11월 16일.

되고, 본인은 우의찬을 맡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 최흥원이 병으로 부임하지 못해 만나지 못했지만, 안정복은 평일에 그를 사모한 정이 있었다고 했다. 최흥원의 조카 화진이 이광정이 쓴 행장과 최흥원의 문인과 아들 및 조카들이 기록한 유사(遺事)를 가지고 가서 안정복에게 최흥원의 묘지명을 부탁하였다. 안정복은 최흥원을 사모한 정이 오래되었으므로 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묘지명을 작성한다고 했다.<sup>66</sup>

이처럼 최흥원은 대구지역 최고 학자로, 당대의 뛰어난 학자와 학문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교류를 했고 후학도 양성하였다. 또한 류형원 집안을 비롯하여 이익·안정복 등 근기 남인 혹은 실학적 성향의 인물과도 교류하였다. 최흥원이 『반계수록』을 교정하게 된 것은 근기남인과 영남 남인과의 결합의 산물이자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옷골 최씨의 향촌 기반 제고로 이어졌다.

## 5. 맺음말

이상으로 『역중일기』를 통하여 옷골 최씨와 최흥원의 혼인 관계망, 최흥원이 학문적으로 교류했던 인물과 『반계수록』의 교정 작업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흥원이 형성한 관계망의 내용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혼인 관계망을 살펴보았다. 경주최씨 9세 최동집이 대구 옷골에 정착한 이후 11세까지는 옥천전씨·인천채씨·달성서씨·영천이씨 등 주로 대구의 사족과 혼인하였다. 12세부터 예안이씨·의성김씨·풍산김씨·고성

66 최언돈·최기척, 『옷골의 행장과 비문』(백불암연구소, 2017), 146~161쪽.

이씨 등 안동지역과의 혼인이 이루어졌고, 영천의 오천정씨, 성주의 벽진이씨, 경주의 경주이씨 등 영남의 여러 지역으로도 혼인 관계망이 더욱 확대되었다. 14세 최흥원은 증조부에 이어 안동의 명망 있는 가문과 중첩 혼인을 하였다. 12~13세가 의성김씨와 중첩 혼인을 하였다면, 14~15세는 조선후기 안동지역에서 의성김씨와 쌍벽을 이루는 하회의 풍산류씨와 거듭 혼인하였다. 이로써 옷골 최씨는 영남지역 최고의 혼반을 형성하였다. 혼인 관계망은 지적 정보를 공유하고 집단 지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둘째, 지역의 명망 있는 학자와의 교류를 통해 퇴계학파의 주류로 편입됨과 동시에 퇴계학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을 확인하였다. 최흥원이 30대에 이현일의 문인인 권구와 김성탁을 방문하였는데, 노론 정권하에서 영남 남인의 수장격인 이현일의 문하생들과 교류하는 것은 최흥원이 퇴계학파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최흥원이 교유했던 학자로는 조선적·임필대·이상정·이광정·김강한·이종수 등을 언급할 수 있다. 40대 초반에 영남의 대표적인 학자 가운데 한 명인 이상정을 만나 평생의 지기로 교유하였다. 이는 옷골 최씨가 영남학파의 주류로 편입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최흥원은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았다. 그의 문인록인 『급문록』에 등재된 문인은 122인이다. 대구·안동·칠곡·밀양·경주 등 16개 지역의 121명과 한양 1명으로 영남의 여러 지역에 걸쳐있다. 최흥원은 자신이 평생 구축한 인적 관계망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그는 아들 주진에게 조선적, 이상정, 소산 이광정, 성호 이익, 늬은 이광정 등에게 나아가 배우도록 하였고, 조카 향진·사진·상진, 족제 흥벽, 손자 식도 이상정의 문하에서 종학하게 하였다. 증손자 최효술이 이상정의 고제인 정종로의 문인이자 외손자가 됨으로써 경주최씨는 퇴계학파의 주류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셋째, 최흥원의 『반계수록』의 교정 작업은 근기남인과 영남 남인의 결합의 산물이자 상징적인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흥원은 대구지역 최고 학자

로, 당대의 뛰어난 학자와 학문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교류를 했고 후학도 양성하였다. 또한 류형원 집안을 비롯하여 이익, 안정복 등 근기 남인 혹은 실학적 성향의 인물과도 교류하였다. 이러한 결과물이 『반계수록』의 교정으로 드러났다.

최흥원이 평생에 걸쳐 형성한 관계망이 갖는 의미는, 문중 계승 차원에서 선조에 이어 옷골 최씨의 문인 가풍을 완성한 점이다. 대외적으로는 서인 혹은 노론정권의 대구지역 사족에 대한 서인화·노론화 의도에 편승하지 않고 영남 남인이자 퇴계학파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한 점이다. 그는 영남의 명문가와 의 혼인 관계망을 강화하고, 학문적 역량을 축적했으며, 영남 및 근기의 남인 학자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옷골 최씨의 향촌 기반 강화에 기여하였다.

관계망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등 여러 층위에서 형성되지만 이 글에서는 최흥원의 관계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한 혼인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한 관계망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부여하였다. 최흥원이 형성한 관계망의 전모는 밝히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보완하겠다.

• 2019. 02. 09 : 논문투고

• 2019. 02. 23 ~ 03. 06 : 심사

• 2019. 03. 08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 참고문헌

- 『大山日記』(필사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曆中日記』(필사본),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국역역중일기』 미간행.  
『百弗庵先生文集』, 慶州崔氏漆溪派宗中, 1999.  
『국역백불암선생문집』, 경주최씨칠계파종중, 2002.  
『국역백불암선생언행록』, 경주최씨칠계파종중, 2002.  
『國譯大山先生實紀』, 한국국학진흥원, 2012.  
『국역갈암집』, 민족문화추진회, 2000.  
이 익, 『星湖全集』  
류형원, 『礪溪隨錄』  
『국역반계수록』(북한과학원 번역), 여강출판사, 1959.  
『慶州崔氏臺巖公派譜』(丁卯譜).  
『豊山柳氏世譜』 1~4, 풍산류씨세보편찬위원회, 1985.
- 김선경, 「16세기 성주 지역 사족의 교유 공간과 감성」, 『역사연구』 24, 역사학 연구소, 2013.  
김정운, 「17세기 예안 사족 金鈴의 교유 양상」, 『조선시대사학보』 70, 조선시대사학회, 2014.  
김명자, 「大山 李象靖(1711~1781)의 학문공동체 형성과 그 확대 — 『大山日記』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9, 조선시대사학회, 2014.  
\_\_\_\_\_, 「순조 재위기(1800~1834) 하회 풍산류씨의 현실 대응과 관계망의 변화」, 『국학연구』 29, 한국국학진흥원, 2016.  
金鶴洙, 『17세기 嶺南學派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7.  
신주엽, 「17~18세기 대구지역 서인계 사족의 활동 — 옥천 전씨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오용원, 「崔興遠의 『曆中日記』를 통해 본 영남선비의 일상」, 『大東漢文學』

45, 대동한문학회, 2015.

李在喆, 『百弗庵 崔興遠의 時代와 그의 現實對應』, 『퇴계학과 유교문화』 29, 경북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1.

전경목, 『『미암일기』를 통해 본 16세기 양반관료의 사회관계망 연구 — 해배 직후 시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73, 조선시대사학회, 2015.

정진영, 『부자들의 빈곤2 — 18세기 중반 영남 한 향촌 양반지주가의 경제생활』, 『大丘史學』 129, 대구사학회, 2017.

崔彦惇, 『百弗庵 崔興遠의 夫仁洞 및 漆溪[옷골] 經營 規範 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최연돈 외, 『옷골의 인물과 유적』, 백불암연구소, 2016.

\_\_\_\_\_, 『옷골의 행장과 비문』, 백불암연구소, 2017.

Abstract

Social Networks of Choi Heung-Won,  
A Sajok of Daegu in the 18<sup>th</sup> Century,  
Revealed in 『Yeokjungilgi (曆中日記)』

Kim, Myung-ja  
Kyungpook National Univ.

This paper is to address social networks of Choi Heung-Won, who was a nobleman lived in Otgol (옫골), Daegu in the 18<sup>th</sup> century, revealed in his diary ‘Yeokjungilgi (曆中日記)’. His social networks, established throughout his life, were significant in terms of that it had completed the literary tradition of the Otgol Choi family. To be more exact, he did not climb on the intention of the Noron party or the Seoin party to incorporate the gentry of Daegu into the Noron party or the Seoron party and decided to incorporate into the Taegae school of Yeongnam to more clearly define his identity. While he strengthened his social networks with prestigious families of Yeongnam, especially Andong, through marriage, he established social ties to other prestigious families through relationships formed by marriage. In the latter half of the 17<sup>th</sup> century.

In the latter half of the 17<sup>th</sup> century, he visited Gwon Gu and Kim Sung-Tak, who were in a political crisis since they were literary men supported by Lee Hyung-Il, the head of Yeongnam literary men, in

order to clarify his academic position as the Taegae school, and after his 40s, he was incorporated into the mainstream of the Taegae school while associating with Lee Sang-Jung, the best scholar in Yeongnam at the time.

There were 122 literary men listed in Choi Heung-Won's record for literary men and they were all over Yeongnam.

A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scholars, he had been engaged in continuous exchanges with Namin. It might be a reason why Choi Heung-Won was able to lead the correction of 『Bangaesurok(礪溪隨錄)』 by Ryu Hyong-Won at the time of its publishment in Gyeongsanggamyeong.

Key words

: Choi Heung-Won(崔興遠), 『Yeokjungilgi(曆中日記)』,  
Social Networks, 『Bangaesurok(礪溪隨錄)』, Daegu,  
Otgol Choi family(옷골 최씨)